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

이 은 미 · 강 혜 원

연세대학교 의 생활학과

The Effect of Age and Clothing Cues on Impression Formation of Men Clothed in Suits

Eun-Mee Lee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3. 10. 2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en's clothing in regard to (1) the effect of wearer's age and clothing cues on impression formation, and (2) the effect of perceiver's age on impressions formed by the wearer's age and the function of clothing cues.

The experimental design of this study was between-subjects 2^4 -full factorial design by 4 independent variables. The subjects consisted of 192 subjects in each of two male perceiver groups according to age(20s and 50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e study were a set of stimuli and a response scale. The stimuli consisted of 16 color photographs made by identical manipulations of 4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ing of 2 levels each. Each one of the sixteen sub-samples included 12 subjects from 2 perceiver groups.

The independent variables provided by the photographs were (1) wearer's age (20s and 50s), (2) suit color (navy blue and beige), (3) suit style (single breasted and double breasted), and (4) necktie color (analogous and complementary colors). The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 scale which was designed to measure the impression of the stimuli was composed of 30 bipolar adjectives. The responses to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and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Wearer's age, suit color, suit style, and necktie col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impression of the 3 factors (appearance · potency, individuality · activity, and evaluation) partially. However, the suit style was the most dominant clothing cue : the single breasted suit conveyed positive impression of individuality · activity to both of the wearer's age groups than double breasted suit did on both of the perceiver's age groups.

2) Perceiver's age partially influenced impressions formed by the age and the clothing cues of men clothed in suits : the young perceiver's group was less affected by them than middle aged group.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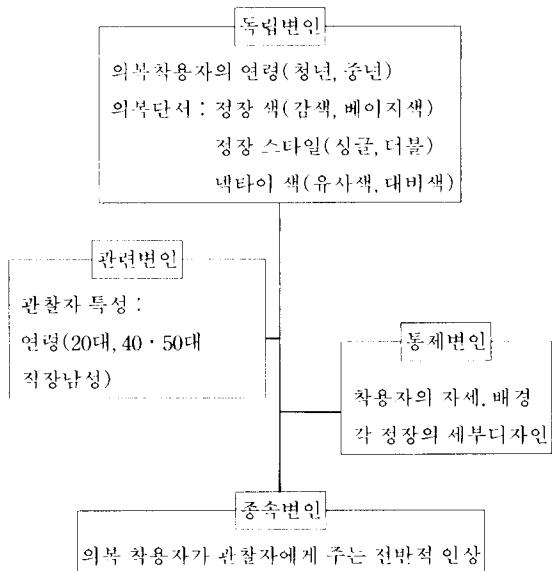
오늘날 수많은 대인접촉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즉각적 판단(snap judgement)에 의해 서로의 광범위한 첫인상을 형성한다¹⁾. 이때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주가 되는데 이때 의복은 외모와 함께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언어적 단서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²⁾.

인상형성시 의복의 영향력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인지각 이론을 중심으로 의복단서와 그러한 단서에 의해 추론되는 착용자의 내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인상형성과정에서 맥락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달라지는 의복의 효과, 그리고 실제 상황에 접근할수 있도록 면접상황 혹은 직장상황에서 의복의 적절성과 관계지어 직업적 특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남성들의 경우, 성공적인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을 위해 의복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공을 위한 의복(dress for success)에 관한 책들이 1970년대 후반이후로 활발히 출판되고 있다. 사실상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복과는 달리 남성의 직장이나 공식석상에서의 적절한 옷차림은 묵시적인 규범에 의해 정장(suit 또는 정장개념의 신사복)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 정장은 자신을 위한 복장이라기 보다는 소속된 단체나 사회의 일원임을 나타냄으로써 남을 의식해서 입어야 하는 의무적 복장으로 유니폼의 성격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 정장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무관심하게 받아 들임으로써 실제적인 연구가 되어오지 못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의복행동 분야의 실험연구는 주로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복에 국한되었으며, 남성복 특히 남성 정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의복유형을 남성 정장에 국한시키고 정장이라는 기본개념 안에서 의복디자인(스타일과 색, 넥타이의 색)과 의복착용자의 연령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변인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큰 여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정장을 실제 착용한 남자모델 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실제로 정장을 착용하는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자극물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장착용자의 특성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1)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과 의복단서(정장의 색, 정장 스타일, 넥타이의 색)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2) 남성 정장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관련변인인 관찰자의 연령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변인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대인지각 이론 및 의복행동 연구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1. 대인지각 이론

1) 인상형성 이론(Impression Formation Theory)

사람들은 매우 한정된 정보에 기초해서 타인에 관한 광범위한 인상을 형성한다. 인상형성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이다³⁾⁴⁾.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의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로 이것은 Asch⁵⁾의 형태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되어진다.

형태주의적 접근에서는 인상이란 지각 대상자가 지닌 특성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하나의 일관된 전체형태(Gestalt)라고 가정하였다. 즉 특성들 중 어떤 것이 중심특성(Central trait)으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지각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특성들이 가지는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주어지는 상황 혹은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형태주의 접근에서 이루어진 기본개념이 도식(Schema)이다. 도식이란 한 개념의 여러 속성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속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인지구조이다. 도식개념은 형태주의 이론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경험들이 둘여져 추상적 형태로 기억에 저장되며 특성개념 또는 대상에 대한 도식으로 조직화 된다. 같은 대상에 관한 여러 정보들은 지각자가 지닌 도식에 의해 연결되고 그 맥락에 따라 각각의 의미가 변화하며, 전반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⁶⁾.

2) 내현성격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

내현성격 이론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일반화 시켜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으로 타인에 대한 특성정보가 주어지면 거기서 인상이 형성되며 이것을 토대로 성격을 추리하여 성격의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성격특성을 갖는 사람은 특정한 기타 성격특성을 함께 갖는다는 성격판단의 틀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여 각자는 나름대로 타인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성격특성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인지각에서 나타나는 후광효과(halo effect)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며 이 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에 대한 신념체계의 연구로 이어져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⁷⁾⁸⁾⁹⁾.

2. 의복과 대인지각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지각자 변인, 지각대상 변인, 상황 변인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의 3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지각자 변인이 미치는 영향

지각자 변인(Perceiver variable)에는 지각자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인지구조 등이 포함된다. 지각자 변인이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적다¹⁰⁾.

Rozencranz¹¹⁾는 사회계층과 성별에 따른 지각자의 차이가 의복의 상징과 관련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의복의 투사법 검사(clothing TA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의복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의복에 대한 지각은 사회 경제적 수준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지각자 판단의 정확, 부정확에 상관없이 지각자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 타인들을 지각하였다.

Rowold¹²⁾는 지각자의 성격특성, 즉 타인의 외모에 대한 지각자의 예민성이 타인의 인상형성에 투사되는지에 대해 의복 자극물을 사용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타인의 외모에 민감한 지각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 특성을 외모단서에 근거한 자극물에 귀인함에 있어서 자존심을 덜 투사시켰다.

Littrel과 Berger¹³⁾는 말쑥한 정도가 다른 옷차림의 학생을 경찰과 상담원에게 제시하고 학생에 대한 인상을 평가시킨 결과, 상담원은 의복착용자의 전체적인 외모에 주목한 반면, 경찰은 옷색이나 양말 등의 세부항목에 주목하였으며, 말쑥하지 못한 옷차림의 의복착용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각자 변인인 지각자의 직업과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2) 지각대상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

지각대상의 변인(Object variable)이란 피지각자 혹은 관찰대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상의 시작적 특성(실제로 보여지는 것)과 이러한 특성들의 두드러짐 등을 포함한다¹⁴⁾. 여기에서는 본 연구목적에 비추어 의복스타일(유형, 형태)과 의복색상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의복스타일 및 유형 : Sweet와 Zentner¹⁵⁾는 4가지 의복스타일(dramatic, natural, romantic, classic)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4가지 차원의 인상(전통적임, 사회성, 격식차림, 힘요인)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고, Pack¹⁶⁾은 4가지 스타일의 의복(conservative, daring, dressy, casual)을 착용한 여자그림을 제시하여 의복착용자의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연구결과 각 의복스타일이

각각의 이미지에 관련되어 평가되어 집을 보였다. Bell¹⁷⁾의 연구는, 종래의 여성복에만 국한되어온 의복변인을 남성복으로 바꾸어 4가지 남성복 스타일(daring, conservative, formal, casual)에 따른 성격지각에 관한 것으로, 연구결과, 정장차림 스타일은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장 사교적이라고 평가된 것은 대담한 스타일 이었다.

의복색의 영향 : 색(color)은 색상 명도 및 채도의 3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의 상징성 및 색에 관련된 인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은 문화나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어느정도 일관성을 나타낸다. 색의 조화방법은 크게 유사색 조화(analogous color harmony)와 보색조화(complementary color harmony)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유사색 조화는 색환(color wheel)에서 인접한 색상의 조화로 색상차이가 적어 동일감과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보색 조화는 색상차이가 커서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 두가지 색 중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상이 의복의 전체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¹⁸⁾¹⁹⁾.

Winakor와 Navarro²⁰⁾는 의복색의 명도(어두운것, 중간, 밝은것)와 의복스타일(dress, suit, sportswear)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고, 각 스타일의 의복착용자를 그린 자극물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호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착용자에 관한 호감평가에 의복색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스타일은 체계적이고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Gipson and Balkwell²¹⁾은 직장 면접상황에서의 의복색과 의복착용자간의 조화(포도주색, 낙타색)와 직업종류(관리직, 판매직)를 독립변인으로 조작하여 착용자의 능력, 자질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의복색의 어울림 정도는 착용자의 평가에 단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관리직 지원자가 적절한 색의 정장을 착용한 경우, 부적절한 색상의 의복을 착용한 판매직 지원자 보다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김광경²²⁾의 직장여성의 남성적·여성적 의복에 관한 연구결과, 색은 능력이나 활동성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단지 평가요인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정장이 갑색인 경우 분홍색보다 따뜻하고 차가우며 남성적인 인상을 주었다.

의복착용자의 영향 : Clayton, Lennon과 Larkin²³⁾은 의복착용자의 나이(20, 30, 40대), 체격조건(마름, 중간,

비만), 의복의 유행수준(유행, 유행에 뒤침, 클래식)을 조작한 자극물을 제시하여 의복의 유행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같은 의복이라도 젊은 착용자가 착용하였을때 좀더 최신 유행으로 지각되었다.

Thurston, Lennon과 Clayton²⁴⁾의 연구는 의복착용자 연령, 신체조건, 의복의 유행 정도가 착용자의 전문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착용자의 연령은 의복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장착용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드레스 착용자의 경우에는 나이든 여성의 젊은 여성보다 좀더 상한 전문적 이미지로 남성들에게 의해 평가받았다.

김재숙²⁵⁾은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복 범주(한복, 서양의복), 유행성 차원(최신유행, 클래식), 착용자연령(젊은이, 노인)을 조작한 자극물을 제시하여 착용자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젊은 의복착용자는 노인보다 더 호의적인 평가차원의 인상, 우호적인 화친차원의 인상과 더욱 세련되고 개화 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3) 상황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

대인 지각에 있어서 상황적 변인이란 지각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context)을 의미한다²⁶⁾.

Workman²⁷⁾의 연구는 시간제 일을 원하는 학생의 면접상황에서 직업종류(상담원, 구장관리인)와 의복의 적절성(suit, overall)을 조작한 자극물을 제시한 후 특성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자가 정장차림 이었을때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Cash²⁸⁾, Ray²⁹⁾ 등은 직장면접 상황에서 관리직에 지원한 여자(Cash의 연구) 또는 남자 신체장애자(Ray의 연구)의 의복의 적절성을 조작하여 의복의 적절성이 고용에 관련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 모두에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한 경우에 보다 긍정적,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Damhorst³⁰⁾는 정장 또는 약식복장(진바지와 T-shirts)을 한 남·녀 회사원이 직장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림 자극물 4장을 제시하고 지각자(남·녀 회사원)에게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들에 대해 자유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정장차림의 착용자는 약식복장의 착용자보다 더 많은 관리적 역할과 높은 지위를 맡고 있으며 활동적,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3. 의복행동

1) 직장 남성의 의복행동

의복의 역할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착용자에게 주는 심리적 역할과,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징적 역할이다³¹⁾.

의복의 상징적 역할에 대하여 Hurlock³²⁾은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의 경우 의복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의 목표달성을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Form과 Stone³³⁾에 의하면 정신노동자(white-collar worker)는 육체노동자(blue-collar worker)보다 의복을 더 중요시하며, 사회구성의 일원으로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의복은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것을 착용함으로써 집단의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직업인의 의복은 직업적 신분상징의 역할이 매우 커서 육체노동자는 작업복 및 유니폼에 의해 인지되고 정신노동자는 정장 및 스포츠웨어로 인지된다³⁴⁾. 고애란³⁵⁾ 연구에 의하면 싱글양복이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의 정신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되었다. 따라서 사회활동을 하는 직장남성들에 있어서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나 성인 남자들에 대한 의복 연구는 다른 연령층이나 여성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성공을 위한 의복

Molloy³⁶⁾, Hix³⁷⁾⁽³⁸⁾, Furstenberg³⁹⁾, Jackson⁴⁰⁾ 등은 남성들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공을 위한 의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성공을 위한 의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지니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이며 능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의복은 한벌 정장(suit)이며, 정장 스타일은 크게 싱글정장(single breasted suit)과 더블정장(double breasted suit)으로 나눌 수 있다. 싱글 정장은 보수적인 클래식(conervative classic)이며, 더블 정장은 우아한 클래식(elegant classic)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더블정장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있는 남성들에게 어울린다.

둘째, 정장의 색은 감색 계열이 좋으며 그 외 적합한 색으로는 회색 등이 있다. 같은 색이라도 색상이 진한

것이 잿운 색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세째, 넥타이는 남성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띠어 착용자의 태도나 지위를 나타내준다. 넥타이의 색은 정장이나 셔츠의 색 보다 진하고 채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넥타이의 무늬는 작고 세한된 것이 좋은데 작은 물방울 무늬, 줄무늬(stripe), 격자무늬(plaid) 등은 격식 차림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남성들은 자신의 인상관리의 한 측면으로 성공을 위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서 사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가설I : 남성 정장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a) 의복착용자 연령 및 (b) 의복단서(정장 색, 정장 스타일, 넥타이 색)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II : 남성 정장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관찰자의 연령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 단서의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용어정의

의복단서 변인 : 정장차림에서의 의복단서들, 즉 정장의 색, 정장 스타일, 넥타이의 색을 포함한다.

의복착용자 변인 : 청년과 중년착용자의 두 수준으로 조작된 의복착용자의 연령을 의미한다.

의복착용자 : 자극물 속의 정장을 착용 한 남자로 편의상 '정장착용자' 혹은 '모델'로 지칭하기도 한다.

정장 : 자켓과 바지로 이루어진 신사복 개념의 남성용 정장(suit)1벌을 의미한다.

싱글정장 : 자켓의 단추가 세로로 단순히 늘어선 흙자락 정장(single breasted suit)으로 '싱글'로도 지칭한다.

더블정장 : 자켓의 단추가 두줄로 되어있는 겹자락

정장(double breasted suit)으로 '더블'로도 칭한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판찰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일련의 사전조사(pilot study) 및 2차에 걸친 예비조사(pre test)를 통해 수정, 보완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남성 정장차림의 의복착용자를 찍은 전신칼라사진(5×7 in) 총 16장이다. 이는 의복단서 변인(정장 색, 정장 스타일, 넥타이 색)과 의복착용자 변인을 각각 2수준으로 조작하여 활용한 것이다. 즉 정장 색은 감색과 베이지색, 정장 스타일은 싱글과 더블, 넥타이 색은 정장 색에 따른 유사색(감색

정장에는 감색 계통, 베이지색 정장에는 카키색 계통)과 대비색(두정장 모두에 빨간색 계통)등 각각 2수준으로 조작하였으며, 의복 착용자 변인은 청년과 중년남성의 2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의복 착용자의 자세, 배경 등은 일정하게 통제하였다. 의복 착용자 및 의복단서 변인의 조작내용은 〈표 1〉과 같다.

보델선정 및 자극물 제작: 자극물속의 의복착용자의 선정기준은 서울시 거주의 20대 청년과 50대 중년남성으로 공업진흥청의 국민체위 조사보고서^[39]를 토대로 표준체형 범위의 체격조건을 가진 지원자들의 얼굴사진과, 동일한 정장차림의 전신사진 비교를 통해 판단집단(의생활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의 평가를 거쳐 모델로 적합한 사람을 청년과 중년 각 1명씩을 선정하였다.

실험의복 즉 남성 정장 및 넥타이는 1990년 봄부터 1991년 여름까지 발간된 남성복 국내잡지와 국외잡지, 그리고 국내기성복 업체의 카탈로그 등을 토대로 유행 경향을 파악, 참고하여 정장은 기성복 업체에 의뢰, 제작되었고, 넥타이는 정장색에 따른 유사색과 대비색의

〈표 1〉 의복착용자 및 의복단서 변인의 조작내용

자극물 번호	변 인 조 작 내 용							
	의복착용자		정장색		정장 스타일		넥타이 색	
	청년	중년	감색	베이지색	싱글	더블	유사색	대비색
1. W ₁ C ₁ S ₁ T ₁	v		v		v		v	
2. W ₁ C ₁ S ₁ T ₂	v		v		v			v
3. W ₁ C ₁ S ₂ T ₁	v		v			v	v	
4. W ₁ C ₁ S ₂ T ₂	v		v			v		v
5. W ₁ C ₂ S ₁ T ₁	v			v	v		v	
6. W ₁ C ₂ S ₁ T ₂	v			v	v			v
7. W ₁ C ₂ S ₂ T ₁	v			v		v	v	
8. W ₁ C ₂ S ₂ T ₂	v			v		v		v
9. W ₂ C ₁ S ₁ T ₁		v	v		v		v	
10. W ₂ C ₁ S ₁ T ₂		v	v		v			v
11. W ₂ C ₁ S ₂ T ₁		v	v			v	v	
12. W ₂ C ₁ S ₂ T ₂		v	v			v		v
13. W ₂ C ₂ S ₁ T ₁		v		v	v		v	
14. W ₂ C ₂ S ₁ T ₂		v		v	v			v
15. W ₂ C ₂ S ₂ T ₁		v		v		v	v	
16. W ₂ C ₂ S ₂ T ₂		v		v		v		v

W : Wearer(의복착용자)

W₁ : 청년

W₂ : 중년

S : Style(정장 스타일)

S₁ : 싱글

S₂ : 더블

C : Color(정장 색)

C₁ : 감색

C₂ : 베이지색

T : Tie(넥타이 색)

T₁ : 유사색

T₂ : 대비색

무늬가 비슷한 여러 넥타이들은 수집하여 판단 집단의 평가에 의해 선정되었다.

실험디자인 : 피험자간 디자인(between-subject design)으로 의복착용자 연령(2)×정장 색(2)×정장 스타일(2)×넥타이 색(2)×관찰자 연령(2)= 2^5 요인 설계로 구성된 것이다. 즉 4개의 독립변인(착용자 연령, 정장색, 정장스타일, 넥타이색)이 2가지씩 조작된 $2^4=16$ 개의 자극물별로 16개의 실험소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각 실험소집단에 대하여 관찰자 연령에 따른 두집단(20대, 40,50대)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실험소집단의 관찰자수는 관찰자 집단별로 12명씩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2) 설문내용

설문지는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정된 30개의 형용사쌍을 7점척도의 의미비분척도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의 피험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직장남성으로, 20대의 일반사무직 192명, 40·50대의 과장급이상 간부직 192명으로 총 384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의 연령은 20대에 있어서는 26~29세가 89%로 대다수였으며, 40·50대에 있어서는 40대가 77.2%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20대, 40·50대 모두에서 대학졸업 이상이 80%로 높았다.

자료수집은 의도적 표집에 의하였다. 자료수집장소는 대, 중소기업의 8곳이었으며 1991년 12월부터 1992년 1월사이에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에는 요인분석, 변량분석 및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가 사용되었다.

IV. 결 과

1.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관한 요인 도출

본 조사에 사용된 30개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함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세 모형(PC모형, PAF모형, ML모형) 및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으나 분석결과 PC모형(주성분 모형)의 결과가 본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하였고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아 요인의 도출은 PC 모형을 사용하였다. 타당한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Scree Plotting을 실시한 결과 가장 타당한 요인수는 3개로 나타났다.

전체 관찰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2>와 같다. 즉 요인I은 '보기좋은-보기싫은', '매력있는-매력없는', '세련된-촌스러운' 등의 외모관련 특성과 '유능한-무능한',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등의 능력관련 특성 등 총 13개의 형용사쌍들이 함께 묶였으므로 외모·능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I의 외모·능력요인은 인상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9.4%로 세 요인중 가장 높았다.

요인II는 개성·활동성 요인으로서 '눈에 띠는-눈에 띠지 않는', '개성있는-개성없는' 등의 개성관련 특성과 '활동적인-비활동적인'의 활동성관련 특성 등 총 14개의 형용사쌍이 함께 묶여 19.1%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III은 평가요인으로서,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9%를 나타내었고 '차가운-따뜻한', '딱딱한-부드러운', '권위적인-권위적이지 않은' 등의 3개 특성이 포함되었다.

2. 가설검증

가설 I, II의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외모·능력, 개성·활동성 및 평가의 세 요인에 대하여 의복착용자 연령, 의복단서 및 관찰자 연령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1차분석으로 의복착용자 변인, 의복단서 변인 및 관찰자 변인을 모두 포함한 5원변량분석(5-way ANOVA)을 실시하였다.

2차분석으로 관찰자 연령 및 의복착용자 연령에 따른 네 집단별로 3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각 변인의 주효과 및 관찰자 연령에 의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로 부터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효과와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전체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적일 경우 독립변인의 각 수준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는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의 표준화된 평균값 차에 의하여 해석하였고, 독립변인들의 단독효과를 상대적

〈표 2〉 남성 정장착용자의 인상요인 : 전체 관찰자

요인I(외모·능력)	요인부하치	요인II(개성·활동성)	요인부하치	요인III(평가)	요인부하치
보기 좋은 - 보기 좋은	.83	화려한 - 수수한	-.76	차가운 - 따뜻한	.78
촌스러운 - 세련된	.77	눈에 띠는 - 눈에 띠지 않는	-.75	딱딱한 - 부드러운	.69
어울리는 - 어울리지 않은	-.77	유행 관심 있는 - 유행 관심 없는	-.74	권위적인 - 권위 적이지 않은	.64
매력 있는 - 매력 없는	-.74	보수적인 - 개방적인	.74		
성공적인지 않은 - 성공적인	.73	평범한 - 평범하지 않은	.74		
유능한 - 무능한	-.71	사무적인 - 사무적이지 않은	.69		
지적인 - 지적이지 않은	-.71	남들과 다른 - 남들과 비슷한	-.67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있는	.70	소심한 - 대담한	.64		
멋 있는 - 멋 없는	-.68	개성 있는 - 개성 없는	-.63		
노련한 - 미숙한	-.63	겸손한 - 자만심이 강한	.61		
전문적인 - 비전문적인	-.60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58		
책임감 있는 - 책임감 없는	-.60	소극적인 - 적극적인	.56		
성실한 - 성실하지 않은	-.59	고전적인 - 현대적인	.56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50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9.4			19.1	5.9
총 설명력(%)	54.4				

으로 비교할 때는 Eta 계수의 자승값(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총 변량)으로 하였다. Eta계수의 자승값이 높을수록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각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도표로 나타내어 해석하였다.

전체 관찰자에 대한 5원변량분석결과 변인들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외모·능력요인에서 정장스타일과 관찰자연령간($F=7.94$, $P<.01$), 개성·활동성요인에서 정장 스타일과 관찰자연령 사이($F=10.30$, $P<.01$)에서 나타났다. 평가요인에서는 착용자연령과 넥타이색($F=5.87$, $P<.05$), 정장의 색과 정장스타일($F=4.62$, $P<.05$), 정장의 색과 정장 스타일($F=15.03$, $P<.05$), 정장 스타일과 관찰자 연령($F=6.82$, $P<.05$), 그리고 착용자연령과 정장 스타일과 관찰자 연령사이($F=6.57$, $P<.05$)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작용효과 제거를 위해 2차 분석으로서 관찰자연령 및 착용자연령에 따른 네 집단별로 3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청년작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20대 관찰자

20대 관찰자 집단이 남성 정장차림의 청년을 평가할 때, 의복단서의 영향에 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세 개의 의복단서변인 중에서 정장의 색과 넥타이 색은 세요인의 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정장스타일 만이 개성·활동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대 관찰자는 청년이 더블정장 보다는 싱글정장을 착용했을 때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의복단서 변인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중년 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20대 관찰자

〈표 4〉에 의하면 20대 관찰자가 남성 정장차림의 중년을 평가할 때 정장스타일과 넥타이 색의 두 의복단서가 개성·활동성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정장스타일의 영향력이 넥타이색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관찰자가 중년착용자를 평가할 때 정장스타일에 있어서는 싱글이 더블보다, 유사색 넥타이가 대비색 넥타이보다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

〈표 3〉 청년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20대 관찰자

		n=96		
분석 방법	요인 sources	외모·능력 F값	개성·활동성 F값	평가 F값
3원	정 장 색	1.58	1.72	.30
변량	정장스타일	1.62	41.10***	.00
분석	넥타이 색	.29	.65	.26
	변인 수준	평균값차ETA계수 ^a	평균값차ETA계수	평균값차ETA계수
M	정장 색 : 감색 베이지색	-.11 .11	.11 -.11	-.06 .06
C	정장스타일 : 싱글	.11	.54	.01
A	더블	-.11 .13	-.54 .11	-.01 .06
	넥타이 색 : 유사색 대비색	-.05 .05	.07 -.07	.05 -.06
		.06	.07	.05

a: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 간의 차($Y_j - Y..$)

***p < .001

*p<.05 ***p<.001

$$b: \text{ETA계수} = \left(\frac{\text{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text{총 변량}} \right)^{1/2}$$

각하였다. 의복단서 변인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청년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40·50대 관찰자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40·50대 관찰자 집단이 남성 정장차림의 청년에 대해 외모·능력요인 및 개성·활동성 요인의 인상을 형성할 때 영향을 미친 의복단서는 정장스타일 이었고 평가요인의 인상에는 정장의 색이 영향을 미쳤다. 즉 40·50대 관찰자 집단은 청년이 싱글보다는 더블정장을 착용했을 때 더 세련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한 반면, 지극히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평가한 정장스타일은 싱글이었다. 또한 베이지색이 감색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의복단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개성·활동성 요인에서 정장의 색과 넥타이 색간에, 평가요인에서는 정장의 색과 정장스타일간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2〉에서는 감색정장의 경우 유사색 넥타이가 대비색 넥타이보다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지각된 반면, 베이지색 정장에서는 대비색 넥타이가 더 개성적

〈표 4〉 중년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20대 관찰자

		n=96		
분석 방법	요인 sources	외모·능력 F값	개성·활동성 F값	평가 F값
3원	정 장 색	3.52	.99	3.13
변량	정장스타일	1.27	56.89***	3.67
분석	넥타이 색	1.01	4.21*	2.44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M	정장 색 : 감색 베이지색	-.18 .18	-.07 .07	-.15 .15
C	정장스타일 : 싱글	.11	.53	.16
A	더블	-.11 .12	-.53 .61	-.16 .19
	넥타이 색 : 유사색 대비색	-.10 .10	.14 -.14	-.13 -.13
		.10	.1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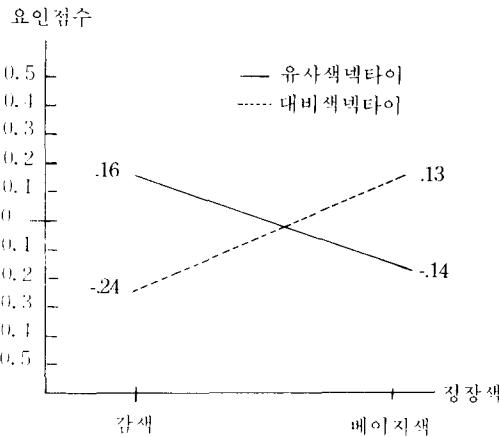
*p<.05 ***p<.001

〈표 5〉 청년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40·50대 관찰자

		n=96		
분석 방법	요인 sources	외모·능력 F값	개성·활동성 F값	평가 F값
3원	정 장 색	.06	.05	26.27***
변량	정장스타일	5.89*	92.49***	.02
분석	넥타이 색	.29	.21	.08
	정장색×넥타이 색		4.83*	
	정장색×정장스타일			8.48**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M	정장 색 : 감색 베이지색	-.02 -.02	-.02 -.02	-.42 .42
C	정장스타일 : 싱글	-.25	.73	.01
A	더블	.25	-.73	-.01
		.25	.70	.01
	넥타이 색 : 유사색 대비색	-.02 .02	.04 -.04	-.02 .02
		.02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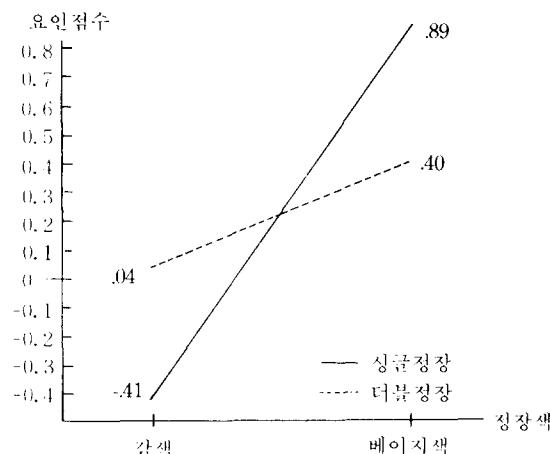
*p<.05 **p<.01 ***p<.001

a: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 제시하였다.



〈그림 2〉 개성·활동성요인에 대한 정장 색과 벡타이 색 간의 상호작용효과

이고 활동적으로 평가됨으로써 반대 성향을 보았다. 〈그림 3〉의 경우, 정장스타일에 상관없이 감색보다는 베이지색이 더 부드럽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감색 정장에서는 싱글보다는 더블이, 베이지색 정장은 싱글이 더불보다 더 부드럽고 더 권위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림 3〉 평가요인에 대한 정장 색과 정장스타일간의 상호작용효과

4) 중년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40·50대 관찰자

40·50대 관찰자가 남성 정장차림의 중년에 대한 인상형성시의 영향은 〈표 6〉 같다. 외모·능력요인의 인

〈표 6〉 중년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40·50대 관찰자

		요인	외모·능력	개성·활동성	평가
분석	방법	sources	F값	F값	F값
3원	정성색		6.02*	.46	25.47***
변량	정장스타일		.71	138.96***	10.10**
분석	벡타이색		.46	.02	8.28**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정장 색: 감색	-.27	.05	-.51
		베이지색	.27	-.05	.51
M			.25	.04	.43
C	정장스타일: 싱글		.09	.83	.32
A	더블		-.09	-.83	-.32
			.08	.77	.27
		벡타이 색: 유사색	-.04	.01	-.29
		대비색	-.04	-.01	.29
			.04	.01	.25

*p<.05 **p<.01 ***p<.001

상에 영향을 미친 의복단서는 정장의 색이었으며, 개성·활동성 요인에는 정장스타일이 강한 영향을 미쳤고, 평가요인에는 정장의 색, 정장스타일, 벡타이 색의 세 의복단서 모두가 영향을 미쳤다. 즉 감색보다는 베이지색 착용자가 더 멋있고 세련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며, 더블보다는 싱글이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감색보다는 베이지색이, 더블보다는 싱글이, 유사색 보다는 대비색 벡타이의 착용자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복단서 변인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찰자 연령 및 의복착용자 연령에 따른 네 집단별로 의복단서 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요약 될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가설I, II에 대해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

의복착용자의 연령은 관찰자 연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년착용자가 청년착용자 보다 세 요인의 인상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다.

의복단서 변인인 정장의 색, 정장스타일 및 벡타이

〈표 7〉 인상형상시 관찰자 연령 및 의복착용자 연령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에 관한 가설검정 결과의 요약

인상요인	관찰자	외모·능력				개성·활동성				평가			
		20대		40·50대		20대		40·50대		20대		40·50대	
		청년	중년	청년	중년	청년	중년	청년	중년	청년	중년	청년	중년
변인 착용자				*								***	***
정장 색													
정장스타일				*	***	***	***	***					**
넥타이 색						*							**

*p<.05 **p<.01 ***p<.001 수준에서 의미있음

색 또한 착용자 연령 및 관찰자 연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상형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장스타일 이었고 넥타이 색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I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 관찰자 연령에 의한 차이

연령에 따른 관찰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착용자 연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40·50대 관찰자 집단이 20대 관찰자 집단보다 착용자 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착용자 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이 20대 관찰자 집단에서는 개성·활동성요인에서만 나타난 반면, 40·50대 관찰자 집단에서는 외모·능력, 개성·활동성 및 평가의 세요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II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 논의

1. 의복착용자 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

의복착용자 연령의 영향은 관찰자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년착용자가 청년착용자보다 세 요인의 인상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복착용자의 연령에 따라 같은 의복이라도 전달하는 인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관찰자 집단은 청년착용자를, 40·50대 관찰자집단은 중년착용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적 태도에 있어 유사점과 공통점을 가진 동시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인상평가에 차이를 나타내었고, 20대 관찰자집단은 중년착용자를 아버지나 직장상사와 동일시하고, 40·50대 관찰자는 자녀나 부하직원과 비슷한 또

래의 청년착용자를 중년에 접어든 자신에 비추어보아 평가함으로써 관찰자연령 및 의복착용자 연령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관찰자 연령 및 의복착용자 연령에 따른 차이를 각 의복단서별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장의 색은 40·50대 관찰자 집단에서만 청년착용자의 경우 평가요인에, 중년착용자의 경우 외모·능력 요인과 평가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즉 40·50대 관찰자는 중년착용자가 감색보다는 베이지색 정장을 착용했을 경우 더 보기좋고 세련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직장남성의 성공을 위한 의복에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능력있게 보일 수 있는 정장의 색은 감색이라고 한 서술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감색 정장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미 보편화 되어 있어 일종의 유니폼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특별히 보기좋거나 세련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 즉 감색 착용자는 단정하고 깔끔하나 지극히 평범한 전형적인 회사원으로 지각된 반면, 베이지색 착용자는 그러한 전형성에서 탈피하여 좀더 세련되고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40·50대 관찰자 집단은 착용자연령에 관계없이 베이지색 착용자가 감색 착용자 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덜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해석한다면 베이지색 착용자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스타일은 개성·활동성요인의 경우에서 20대 관찰자와 40·50대 관찰자는 모두 싱글정장을 더 개성있고 활동적이라고 평가한 점에서 일치를 보였다. 이는 관찰자집단이 직장남성 이었으므로 직장내의 의복규범으로 설명되어질수 있다. 의복규범은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개인의 심리적 근거에서 출발하므로 의복규범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성공 및 자존심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직장내에 수용될 수 있는 정장스타일은 '두드러지고 활동에 불편한 더블보'다는 싱글스타일임을 잘 인식함으로써 활동적인 싱글스타일을 높이 평가하고 싱글스타일 내에서 개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40·50대 관찰자의 경우 청년착용자를 지각할 때 더불착용자가 싱글착용자 보다 더 세련되고 능력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개성·활동성요인에서 다른 관점이 나타나었다. 즉 더불정장이 개성·활동성측면에서는 싱글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현재 유행하는 정장스타일의 경우 더불이 주류를 이루므로 오히려 더불을 착용하는 것이 개성없이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더불스타일이 싱글과 달리 단추를 여미지 않으면 단정해 보이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활동시 불편한 단점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넥타이 색에 있어서 20대 관찰자는 중년착용자가 유사색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지각하였는데 이는 20대 관찰자는 중년에 어울리는 넥타이는 눈에 띠고 두드러지는 짙은이 취향의 대비색 넥타이보다는 유사색 넥타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40·50대 관찰자는 중년 착용자가 정장의 색과 유사색의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보다 정장색과 대비색 넥타이의 조화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정장의 색과 유사색 넥타이는 정장차림에서 전혀 두드러짐없이 정장의 한 부분으로 지각되어 오히려 유니폼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차갑고 권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넥타이는 정장차림에서 특히 단추를 여민 상태에서는 차지하는 면적이 작으므로 정장의 색이나 스타일에 비해 잘 지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넥타이 색이 성장의 색과 대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2. 관찰자 연령에 의한 차이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관찰자연령에 의한 차이는 착용자연령 및 의복단서 변인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검정하였다. 40·50대 관찰자 집단이 20대 관찰자 집단보다 착용자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즉 착용자 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이 20대 관찰자 집단에서는 개성·활동성요인에서

만 나타난 반면, 40·50대 관찰자 집단에서는 외모·능력, 개성·활동성 및 평가의 세요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는 40·50대 관찰자집단이 청년착용자와 같은 20대 회사원을 면접할만한 지위의 회사의 중견간부로서 연륜과 오랜 직장생활의 경험으로 타인을 평가할 때 더 많은 외모단서들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VI.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인상형성 연구를 위한 실험의복으로서 실생활에서 착용되어지는 다양한 의복 중 남성정장 만을 사용하였으며, 의복의 조작변인으로는 연구당시의 유행(current fashion)을 기본으로 하여 정장의 색, 정장 스타일 그리고 넥타이 색을 두 수준으로 조작하여 적용했다는 점과 둘째, 의도적 표집에 의하여 피험자는 서울거주 직장남성으로 고교졸업 이상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높은 학력을 가진 집단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복으로 남성 정장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남성복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의복유형, 즉 격식차림 의복, 캐주얼, 스포츠웨어 등과 같은 의복을 포함하고 동시에 같은 의복유형 내에서 최신유행, 대중유행, 클래식 등의 유행성 정도등을 조작하여 인상형성시 의복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정장차림에서의 의복단서의 영향을 규명한 것으로 정장의 색, 정장 스타일, 넥타이 색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그외의 의복단서로 다양한 색과 무늬, 질감 등이 다른 정장, Y-셔츠, 넥타이 등과 남성 정장 속에 입는 조끼, 자켓의 웨주머니에 끓는 장식용 손수건(pocketchief)을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작은 의복단서의 영향까지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복을 착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의복착용자에 전반적인 인상차원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의복이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 사교적 상황 등 상황을 다르게 조작하여 연구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복의 인상효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Schneider, D.J., Hastorf, A. & Ellsworth, P.C., Person Perception(2nd ed.), Mass. Addison-Wesley Pub.Co. (1979)
- 2)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2nd ed.) Boston, Mifflin Co.(1975)
- 3) Freedman, J., Sears, D. & Carlsmith, J.M., Social Psychology(4th ed.), N.J., Prentice-Hall Inc. (1981)
- 4) 정양은, 사회심리학, 경문사, (1979)
- 5) Asch, S.E.,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dlogy.*, 41, 258~290, (1946)
- 6) Fiske, S.T., & Taylor, S.E., Social Cognition, Ca. Addison-Wesley Pub. Co. (1984)
- 7) Schneider, D.J., op.cit.
- 8) Fiske, S.T., op.cit.
- 9) 조궁호,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8, 197~223, (1986)
- 10) Lennon, S.J. & Davis, L.L.,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I : Theoretical Perspective, *Clo. & Tex. Res.J.*, 7(4), 41~48, (1989)
- 11)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 N.Y., The MacMillan Co. (1972)
- 12) Rowold, K.L., Sensitivity to the Appearance of Others and Projection as Factors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ResJ.*, 13(2), 105~111, (1984)
- 13) Littrell, M.A. and Berger, E.A., Perceiver's Occupation and Client's Grooming Influence on Person Perception, *Clo. & Tex.Res.J.*, 4(2), 48~55, (1985"86)
- 14) Lennon, S.J., op.cit.
- 15) Sweat, S.J., and Zenther, M.A.,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 Gender-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ResJ.*, 4(2), 175~186, (1985)
- 16)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 & Tex.Res.J.*, 5(1), 10~16, (1986)
- 17) Bell, E.L.,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 & Tex.Res. J.*, 10(1), 8~12, (1991)
- 18) Latzke, A. and Horte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Y., The Ronald Press Co. (1968)
- 19) Horn, M.J., op.cit.
- 20) Winakor, G. and Navarro, R.,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 & Tex.Res.J.*, 5(2), 40~48, (1987)
- 21) Gibson, L.A. and Balkwell, C., Effect of Harmony between Personal and Apparel Coloring on Perceptions of a Woman's Employment Potential, *Clo. & Tex.ResJ.*, 8(2), 23~28, (1990)
- 22) 김광성,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23) Clayton, R., Lennon, S.J. and Larkin, J., Perceived Fashionability of a Garment as Inferred Fashion from the Age and Body Type of the Wearer, *Home Ec.ResJ.*, 15(4), 237~246, (1987)
- 24) Thurston, J.L., Lennon, S.J. and Clayton, R.V.,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 ResJ.*, 19(2), 139~150, (1990)
- 25) 김재숙, 의복 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26) Lennon, S.J., op.cit.
- 27) Workman, J.E., Effect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s of Personal Disposition, *Clo. & Tex. ResJ.*, 13(1), 20~23, (1984~85)
- 28) Cash, T.F.,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on the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Lexington Books, (1985)
- 29) Ray, G.H., Perception of Physically Impaired Job Applicants : Effect of Dress, Credentials, and Rater's Sex, *Clo. & Tex.ResJ.*, 4(2), 16~19, (1985~86)
- 30) Damhorst, M.L.,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 & Tex.ResJ.*, 3(2), 39~48, (1985)
- 31)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Ams Press Inc., (1976)
- 32)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4th ed.) N.Y., McGraw-HillBook Co., (1975)
- 33) Form, W.R. & Stone, G.,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504~510, (1957)
- 34) Horn, M.J., op.cit.
- 35) 고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3)
- 36) Molloy, J.T., Dress for Success, N.Y., Warner Book, Inc.,
(1978)
- 37) Hix, C., Dressing Right, A Guide For Men, N.Y., Crown
Publishers (1978)
- 38) _____, How to Dress Your Men, N.Y., Crown Publi-
shers, (1981)
- 39) Furstenberg, E.V., The Power Look, N.Y., Fawcett Colu-
mbine, (1978)
- 40) Jackson, c., Color for Men, N.Y., Ballantine Books, (1984)